

콜레스테롤 강하제가 심장에 좋다?

스타틴 계열, 당뇨병 환자 발병위험 낮춰 ... 카피약으로 가격 절감

스타틴(-statin) 계열의 콜레스테롤 강하제가 성인당뇨병 환자들의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약 3분의 1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영국의 BBC 인터넷판에 따르면, 영국 옥스퍼드대학 임상시험실의 로리 콜린스 박사가 영국의 의학전문지 <랜싯> 최신호를 통해 6000명 가까운 성인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, 심바스타틴(상품명 <조코르>)을 1일 40mg씩 복용한 사람은 시험 시작 당시 심혈관질환 조짐이 있었던 환자든 아니든 간에 복용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질환 위험이 약 30%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콜린스 박사는 성인당뇨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훨씬 높고 사망 원인 중 대부분이 심혈관질환이라고 지적하며, 따라서 새로운 임상시험 결과는 성인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.

또 의사들은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제3의 치료 전략으로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강하제 투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콜린스 박사는 콜레스테롤 강하제의 투여로 성인당뇨병 환자의 3분의 2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매년 세계적으로 최소한 100만 건의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

스타틴계열의 콜레스테롤 강하제는 여러 가지가 시판되고 있으며 일부는 상표특허 기간이 만료돼 이른바 카피 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카피 약을 택하면 약 값을 크게 줄일 수 있다.

영국에서는 심바스타틴 40mg이 1.06파운드(2100원 상당)이지만 심바스타틴의 영국 특허가 2003년 5월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나올 카피 약은 10-25펜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6/24>